

## 누문

이 빛바랜 목조문은 셋샤(경내 소규모 신사) 배례전(p.XX)과 마찬가지로 1318년에 세워졌으며 과거 불교와 신토(일본의 민속 종교)가 굳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. 이 문은 불교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류의 누문으로, 큰 종을 달아 시간을 알려 승려들에게 식사와 기도에 부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. 이 문이 신사의 정중앙에 있다는 것은 신토와 불교가 같은 경내에 존재했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.

1868년에 불교와 신토가 공식적으로 나뉘면서 종은 분리되어 팔렸습니다. 현재 종은 없지만, 이 누문은 '시카쿠몬(네 다리문)'이라고 불리는 문의 좋은 예로, 처마 밑에는 2단 목조 까치발이 있으며 지붕에는 노송나무 판자로 만든 지붕널이 대어져 있습니다.

상층부의 목재판은 4개의 한자가 새겨져 있으며 이 글자를 합치면 '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되었으나 언제나 새롭다'라는 뜻이 됩니다. 이 한자는 과거 총리인 야마가타 아리토모(1838~1922)의 친필입니다. 일본에서 아주 오래된 신사 중 하나이며 부흥과 재생의 장소인 이소노카미 신궁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.